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1년 2월 4일 (목)

CONTENTS

-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이슈브리프
(IB 2021-02)

CONTENTS

- I.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1

 - II.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14

 - III.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 24
-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장경수

발행일: 2021년 2월 4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이번 호(2월 1째주)는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업을 통해 한반도/대북정책을 전망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고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제1편: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관할하는 국무부 라인업을 보면,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성김(61), 그리고 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정박(47)이 포진. 同 라인업의 특징은 과거 북핵/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대북 다루기'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이에 당초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북접근법 전면 재검토가 발표되면서 향후 정세변화에 귀추가 주목됨

제2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제방훈 전략기획위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19년 한 해만 약 20만 건이 확인, 860억원이 환수결정되는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임. 기재부는 '17년 7월부터 부정 수급 의심 징후를 포착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2년간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1,466건의 부정징후 의심 사례를 각 부처에 통보. 하지만 통보받은 부처는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침.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확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제3편: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정창훈 前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보궐선거가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임 시장의 임기동안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따른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 △감염병 위기에도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 절대 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에도 서울시 지원대책은 미흡, △주민 의사 무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용세습 등의 실정을 분석함. 더불어 청년실업과 여성 성폭력 대책으로 △청년 지업사업 확대, △여성부시장제 신설 등을 제안함

1.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작성: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lee.youn.seek@ydi.or.kr)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우리와 관련 깊은 對동북아, 對한반도, 대북정책 및 북핵 협상 등을 직접 다루는 부서에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CIA 및 DNI 등이 있음. 현재 수장(장관, 국장, 보좌관) 인선은 마무리된 상태이고, 부장관 및 실무그룹의 인선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짐. 그중에서 특히, 對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을 관할하는 국무부 라인업을 보면,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성김(61), 그리고 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정박(47)이 포진. 同 라인업의 특징은 과거 북핵/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대북 다루기'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이에 당초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북접근법 전면 재검토가 발표되면서 향후 정세변화에 귀추가 주목

1.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ABT 정책' 본격화

- 1.20(수) 12:00,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바이든 (Joseph R. Biden)의 취임식이 거행되며, 新정부가 공식 출범
 - 그는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democracy has prevailed)”며,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의 부상”을 경계하는 등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미국의 통합’을 강조
 - 즉, 양분된 미국을 통합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뜻을 피력(*민주주의 11회, 단결 8회 등)
 - 취임식 후 바이든은 즉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그리고 멕시코 장벽설치 중단 등 2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적극적 ‘트럼프 지우기(ABT: Anything But Trump)’ 행보에 나섬

- 바이든의 진단은 트럼프가 집권 내내 보여준 대내외적 갈등과 혼란이 바로 “미국 사회의 분열과 리더십 추락”의 원인이었다고 봄
 - 대내적으로 인종 갈등과 反유색인종 정서를 만연시켰고 빈부 격차도 심화시킴으로써, 300년 이어온 美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했다고 평가
 -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와 전통적 동맹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국제적 규범과 가치의 손상 및 글로벌 리더십을 추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
-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는 미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리더십 복원을 위해 임기 초반 ‘트럼프 지우기(ABT 정책)’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ABT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반에 두루 나타나는데, 후보시절 공약과 민주당 정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 ※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경기부양과 부자증세, △신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교육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 △선택적 복지 접근성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 특히, 同 기조는 대외정책 분야에서 더욱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 바이든은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가 美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리더십 복원을 위해 트럼프가 탈퇴한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 재가입하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천명
 -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신정부를 이끌어갈 외교안보 인사들의 면면과 발언을 종합하면, 한결같이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으로 귀결
- 이에 同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평가하고, 향후 이들이 추진할 대한반도 및 대북정책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2. 외교안보라인 인선 및 평가

-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對中, 對한반도, 對北정책(북핵 협상) 등을 다루는 부서 및 조직에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CIA 등이 있음
 - 현재 수장(장관, 국장, 보좌관) 인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부장관과 실무그룹의 인선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부처의 수장뿐 아니라 부장관과 실무진(차관, 차관보 등)도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진용을 완비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 기조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세팅되기까지 통상 3~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

① 국무부 라인업

- 국무부는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에 성 김(61), 그리고 부차관보에 정 박(47) 등이 내정되어 업무에 돌입한 상태
 - 현재 블링컨은 인사청문회(1.19)를 거쳐 상원의 인준(1.26)을 마쳤고, 셔먼 부장관도 대통령의 지명(1.16)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 중임
 - 또한, 성 김이 ‘대행’ 꼬리표를 떨지 유동적인 가운데, 외교가에선 “정식 인사 前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한시적 자리”란 시각이 우세
 - 특히 한반도 담당 부차관보에 정 박이 임명되면서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이 남은 상태이긴 하지만, 향후 북핵협상에 관심이 집중

〈표 1-1〉 국무부 라인업의 주요 이력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국무장관	 <p>토니 블링컨 (Antony Blinken)</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미 뉴욕주 뉴욕 출생 - 하버드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졸업 - 2009~2013년 바이든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 2013~2015년 오바마 대통령실 국가안보 부보좌관 - 2015~2017년 국무부 부장관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과 20여 년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으로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주도 - 2016.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대북제재 강화에 적극 앞장서는 등 강경 기조로 분류 - 2015.7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이끌어냄
부장관	 <p>웬디 셔먼 (Wendy Sherman)</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미국 출생 - 보스턴 대학교 학사, 메릴랜드 대학원 사회학 석사 - 2000~2001년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 조정관 - 2011~2015년 국무부 정무차관 - 2015~2016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실무진과 ‘대면 협의’ 경험이 풍부하며,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면담 -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고 느낄만큼 혹독한 제재가 필요”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동아태 차관보	 <p>성 김 (Sung Y. Kim)</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한국 출생(미 시민권 취득, 한국계 미국인)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2008~2011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 - 2011~2014년 제22대 주한미국 대사 - 2014~2016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2016~2021년 필리핀 대사, 인도네시아 대사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수석대표 및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거친 자타 공인 “북핵통이자 한반도 전문가” -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설정에 성 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
부차관보 (북한 담당)	 <p>정 박 (Jung H. Pak)</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생 한국계 미국인, 뉴욕 퀸즈에서 성장 -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 미국 역사 전공(역사학 박사) - 2009~2017년 CIA 및 DNI 북한담당 정보분석관 - 2016~2017년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 - 2017~2020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므로, 향후 대북정책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 文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

○ 이렇게 볼 때, 국무부 라인업은 과거 북핵/북한문제를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란 평가가 가능

-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고,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 김정일을 직접 면담한 바 있으며,

- 성 김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자 2018년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실무 대표를 맡았고, 정 박은 CIA와 DNI 등에서 북한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한 자타공인 ‘북한 전문가’
- 따라서 이번 국무부 라인업은 북한에 결코 녹록치 않은 대미 협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북한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진용으로 평가

② 국방부 라인업

- 국방부는 장관에 로이드 오스틴(58), 부장관에 캐슬린 히스, 그리고 정책 차관에는 콜린 칼, 아태담당 차관보에는 일라이 래트너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오스틴은 美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으로 관심을 받으며, 상원 인준 청문회(1.22)를 ‘贊 93표 vs. 反 2표’로 가볍게 통과
 - 다만, 41년 군생활 동안 주로 유럽과 중동(중부지역 사령관)에서 근무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태 지역 경험이 없는 게 단점으로 평가
- 히스 역시 최초의 여성 ‘팬타콘 넘버2’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에 관여한 바 있어, 오스틴 장관의 부족한 對中 경험을 보완해 미중관계를 조율해 나갈 책임자로 평가

〈표 1-2〉 국방부 라인업의 주요 이력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국방장관	 <p>로이드 오스틴 (Lloyd Austin)</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 앨라배마 주 모빌 출생 - 미국 육군사관학교, 오번대학교, 웨스턴대학교 졸업 - 2013~2016년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4성 장군)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중부지역 사령관이자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 - 41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근무했고, 중부사령관 당시 IS 소탕작전을 지휘 - 단,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복무 경험이 없어서, 동아태의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음
부장관	 <p>캐슬린 히크스 (Kathleen Hicks)</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미국 출생 - 매릴랜드대학교 졸업, MIT대학교 정치학 박사 - 2009~2012년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부차관 - 2012~2016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 - 2017~2020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추진에 관여하면서 미중관계를 점검 - 중국의 부상에 대해 다수 기고, 특히 트럼프의 주한미군 약화 및 감축에 부정적 견해 피력
정책차관	 <p>콜린 카hl (Colin Kahl)</p>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간대학교 학사,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 2009~2011년 미 국방부 중동담당 부차관 - 2014~2017년 오바마 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 및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동맹관계 중시, 이란 및 중동문제 전문가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아태담당 차관보 (유력)	일라이 래트너 (Ely Ratner)	<p>○ 주요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012년 국무부 중국·몽골 담당 부보좌관 - 2015~2017년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바이든 캠프에서 동아시아 워킹그룹 총괄 지휘 - 신미국안보센터(CNAS) 부소장 <p>○ 인선 배경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 - 톱다운 방식과 냉전적 해법 지양, 바텀업 방식 지향

- 국방부 라인은 美 역사상 최초의 흑인 장관과 여성 부장관이란 다소 파격적인 인선 하에, 실무그룹엔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상보성을 유지한 인선으로 평가
- 특히, 정책적으로는 중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아태 지역에서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중국 전문가, 히스와 래트너 배치)한 인선

③ 백악관(NSC),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등

- 백악관 NSC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45)을 지명하고, 인도 태평양 조정관에는 커트 켈벨(64)을 임명한 상태
- 설리번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가장 젊은 NSC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란 핵문제, 북핵문제 등에 전문성과 강점이 있음
 -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맹국들간 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북핵 포기 대가의 부담을 중국도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
- 켈벨은 외교관 출신으로 동아태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의회와의

관계도 원만해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전략' 설계 및 수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자적 네트워크가 향후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므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윌리엄 번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에이브릴 헤인스가 지명됐고, 현재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고 업무 중임

- 번스는 국무부에서 33년 근무한 정통 외교관으로, 중동 평화협상 및 이란 핵합의 타결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자타공인 “중동통”

- 헤인스는 청문회(1.19)에서 “북한을 중국 등과 함께 주요 위협국으로 분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관련 정보를 분석하겠다”고 밝힘

• 특히, 지난 7월 의회 행사에서 북핵 협상에 대해 “단계적 접근법이¹⁾ 큰 충돌없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목

〈표 1-3〉 백악관, CIA, DNI 라인업의 주요 이력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Jake Sullivan)	○ 주요 이력 - 1976년 버몬트 주 벌링턴 출생 - 예일대학교 로스쿨, 영 옥스퍼드대학교 졸업 - 2010~2013년 국무부 부비서실장 및 정책기획 국장 - 2013~2014년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인선 배경 및 특징 - 동맹국들과 협의 하에 북한의 전반적 핵능력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 - 단기적 북한 핵확산 감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의 필요성 제시(2020.9월) - 이란 핵협상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이란 핵 합의(JCPOA)를 옹호

1) 헤인스가 말한 단계적 접근이란 “핵-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중단과 검증, 또한 동결과 검증 단계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직위	이름	주요경력 및 특징
인도 태평양 조정관	 <p>커드 캠벨 (Kurt Campbe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출생 - UC샌디에고 대학교 졸업 - 2009~2013년 前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 2013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대통령 특별보좌관 -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공동창립자 ○ 인선 배경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동아태 지역의 외교를 총괄하며,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설계 - 북핵 및 북한문제 전문가로서 '대중국 견제 외교'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 - 톱다운 방식과 냉전적 해법 지양, 바텀업 방식 지향
CIA 국장	 <p>윌리엄 번스 (William Bur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브래그 출생 - 英 옥스퍼드대학교 졸업(국제관계학 박사) - 2005~2008년 주러시아 미국 대사 - 2011~2014년 국무부 부장관 - 2015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회장 ○ 인선 배경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 5명의 대통령 시기에 국무부에서 33년간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 - 중동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이란 핵합의 타결 과정에 미국 대표단으로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인선 배경은 풍부한 외교적 경험,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회복, 러시아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분석
DNI 국장	 <p>에이브릴 헤인즈 (Avril Hain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출생 - 시카고 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 2013~2015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 2015~2017년 국가안보부 보좌관 ○ 인선 배경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CIA부국장에 임명돼 중앙정보국 역사상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 - 특히,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백악관 관리 중 한명으로 꼽힘

3. 향후 대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지금까지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즉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CIA와 DNI의 라인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았음
 - 특징은 부처 內 전문 분야간 상호보완성과 부처들간 정책적 균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 특히, 국방부는 ‘최초의 흑인장관’이란 정치적 상징성 부각을 위해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업무적 균형을 부장관과 실무진을 통해 보완
 - 즉, 오스틴의 경력은 중동에 특화되어 동아태 지역이 소홀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를 중국 전문가인 부장관을 기용해 균형을 맞춤
 - 또한, 캠벨(NSC 아시아 조정관)이나 번스(CIA 국장)의 기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 관료를 기용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업무 장악 및 추진 가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
 - 아울러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최측근 참모들(블링컨, 설리번, 콜린 칼, 일라이 래트너 등)을 곳곳에 배치해, 대통령의 생각을 아래로 투영시키면서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 한편, 국무부 라인업을 보며 주목되는 건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 문제, 즉 비핵화 협상이 생각보다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점
 - 라인업이 북핵/북한문제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귀환해 포진한 상태라,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할 물리적 시간이 따로 필요 없음
 - 또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및 한반도 상황을 교육시켜야 할 부담이 없어졌다는 이점이 생긴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빠꼼이들이라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듯이 대할 수만도 없다는 부담감이 상존

○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전통적 동맹관계의 복원”이며, 지역으로는 중동(이란)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이런 관점에서 대중정책, 대한반도정책, 대북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대중정책: “협력, 경쟁, 대치의 혼합정책”

- 우선 對中정책은 “경쟁과 협력의 병행 추진”이 될 것이며, 켈빈과 히스 등이 ‘新아시아 전략’을 설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임

• △협력분야(Cooperation): 보건, 기후변화, 북핵 등, △경쟁분야(Competition): 경제 통상, 5G 등, △대치분야(Confrontation):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

- 예상되는 ‘신아시아 전략’의 골자는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다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경쟁적 우위를 지켜나가는 것임

② 한반도 정책: “한미일 공조복원을 통한 북핵 다루기”

- 對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복원을 통한 대중 견제 및 대북 압박”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한미간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정부의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이란 기조 하에 조속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발생할 전망

- 반면, 한미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및 북한인권 압박시 文정권과의 이견, 그리고 대중 압박에 대한 미국의 동참 요구에 한국 무시하며 생길 갈등 등임

③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2” => “대북정책 재검토”

- 대북정책은 당초 ‘전략적 인내 version-2’를 예상했으나,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보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대북 다루기’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가능

※ ‘전략적 인내-2’: 전통적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 연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기를 압박하는 정책

- 특히, 블링컨이 인준청문회(1.19)에서 “대북정책 및 접근법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안보뿐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도 동등하게 다룰 것을 강조
 -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소홀했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도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 또한, 백악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1.23)을 통해 “대북 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

○ 이렇게 볼 때, 현재 미국은 북한을 잘 아는 참모들을 전진 배치하며 ‘ABT(反 트럼프)’에 기반한 정책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데, 文정권은 여전히 ‘묻지마식 대북 유화책’을 고집하고 있어 한미간 마찰이 우려

- 우리는 정부의 한미간 엇박자가 될 수 있는 행보에 자제를 요청하고, 한미간 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촉구
- 특히, 우리 정부가 한미간 조율 없이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마련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한미간 불협화음만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 따라서 북핵 해법을 찾고, 평화 변영의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에 기반해 북한을 비핵화 길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해야 함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